

일본, PTA 생산감축 확대!

원료가격 급등 타개 위해 ... 중국 Polyester 가격하락도 영향

일본의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메이커들이 감산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Polyester 원료의 수급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타이완의 CAPCO와 BP의 중국 및 말레이시아 플랜트에 이어 Mitsui Chemicals(三井化學)도 岩國공장에서 대폭감산을 단행했다.

2003년 들어 원료 P-X(Para-Xylene) 가격이 급등한 이래 최대시장인 중국에서 Polyester 중합설비 가동이 대폭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증설 러시로 시세하락이 우려되던 PTA는 주요 메이커가 잇따라 감산함에 따라, 걸림돌이던 중국의 PTA 재고는 5월중 해소될 것으로 보여 시황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 타이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던 P-X도 뜻하지 않은 수급 밸런스 붕괴에 직면해 유일하게 높은 가격대로 추이하던 4월 계약가격이 곧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itsui Chemicals은 岩國공장의 PTA 71만톤 플랜트를 비롯해 4월19일부터 전계열에서 대폭적인 감산을 실시하고 있다. 감산기간은 미정이나 5월의 황금연휴기간까지 감산체제를 유지한 판단할 방침이다.

Mitsui는 중국수요 저조 및 P-X 가격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배경으로 중국에 대한 PTA 수출거점인 岩國공장에서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감산은 가을에 예정된 정기보수를 앞당겨 실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No.3 PTA 35만톤 플랜트는 3월 하순부터 약 1주일간 예정된 CSD(Cleaning Shut Down)를 설비보수를 위해 3주간 연장했다.

따라서 3월 하순부터 5월초 PTA 생산량은 당초 예상의 5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의 Polyester 중합설비는 川下の 면사시황 저조 및 원료가격 급등에 따라 현재 가동률을 50% 정도로 낮추는 이례적인 대폭감산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2003년 들어 PTA 플랜트를 신설한 메이커를 중심으로 PTA도 3월 하순부터 감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50만톤 신 플랜트를 가동한 삼남석유화학은 기존설비의 정기보수 등에 따라 신설 후에도 PTA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BP는 중국 珠海에서 최근 가동에 들어간 50만톤 플랜트 및 말레이시아의 기존설비 가동률을 낮추며 대응하고 있다. 또 CAPCO는 70만톤 신 플랜트의 완공에 따라 기존설비 중 50만톤 가동을 정지하고 있다.

PTA의 잇따른 감산은 P-X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원료 나프타 가격이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크게 하락했으나 4월 P-X 계약가격은 3월보다 30달러 하락한 830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료가격이 하락해도 PTA 신 플랜트 러시에 따라 P-X 공급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PTA의 잇따른 감산에 따라 P-X가 공급과잉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원료 나프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계약가격의 인하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5/07>